

- 행사 개요 -

일시: 2018년 10월 19일 (금) 10시 30분 ~ 12시 30분

장소: 정동제일교회

주최: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070-7756-0226), 교육연구소 살림,
희망의 숲 사회적협동조합

진행: 유미호 센터장

01. (영상) 정원, 낙원을 열핏 보여주는 곳

김순현 목사 ('비밀의 정원' 정원사)

02. 정원신학을 기대하며

곽호철 교수 (계명대학교, 교육연구소 살림 소장)

03. 정원 속에 깃든 교육적 의미

조은하 교수 (목원대학교)

04. 생태공동체, 수도원의 정원

설은주 원장 (살림가정교육문화원)

05. 일상에서의 정원디자인

박여원 박사 (도시원예사사회적협동조합)

06. 교회정원 이야기

김성국 (시냇가푸른숲교회)

남금란 (전국여교역자연합회 복지재단 가폭피해자 복지시설)

정진훈 (에덴정원)

07. 정원에 대한 기억

김선정 (연세대학교 교수)

이경자 (살림 코디)

한영란 (동작구 에너지자립마을)

이경수, 조옥향 (숲 해설가)

권오순 (이야기 살림밥상)

08. '교회 정원숲 네트워킹'을 위한 대화

(첨부: 자료집)

목차

1. 정원, 낙원을 열핏 보여주는 곳 / 김순현.....	02
2. 정원신학을 기대하며 / 곽호철.....	07
3. 정원 숲 신학을 시작하며 / 김수연.....	09
4. 정원 속에 깃든 교육적 의미 / 조은하.....	11
5. 생태공동체, 수도원의 정원 / 설은주.....	13
6. 일상에서의 정원디자인 / 박여원.....	16
7. 아름다운 너, (및 8편의 시) / 남금란.....	18
8. 산림청장의 귀촌일기 / 조연환.....	26

정원, 낙원을 열핏 보여주는 곳

에스겔 36:34-35

‘비밀의 정원’ 정원사 김순현 목사 (여수 갈릴리교회)

‘비밀의 정원’ 조성기

‘좀 더 작게(smaller), 좀 더 느리게(slower), 좀 더 가난하게(more poor), 좀 더 불편하게(more inconvenient)’를 마음속 표어로 삼고, 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생명과 평화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생명과 평화의 길을 걷는 녹색교회’를 갈릴리교회 표어로 걸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생명 긍정(yes to life)과 생명 살림, 생명과 생명이 어우러져 이루는 조화와 평화에 삶의 초점을 맞추어 온 지 열두 해가 되었습니다. 그 세월은 전 지구적 생태 위기의 시대에 창조세계의 보전을 위해 힘쓰는 삶,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고품격 생활방식을 강조하고, 초록 땅별 지구를 좀 더 풍요로운 행성으로 복구하는 데 단순하고 소박한 삶만큼 바람직한 삶이 없음을 온 교우와 함께 갈무리한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갈릴리교회의 ‘비밀의 정원’입니다. ‘비밀의 정원’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정원지기(κηπουρός)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20:15)를 본받으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교회가 왜 정원을 일구어야 하는지, 교회가 낙원을 열핏 보여주는 곳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가 지속 가능한 삶을 꿈꾸고 이야기하려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자신의 존재로 생생히 증언하고, 정원 일(gardening)이야말로 우주의 가장 깊은 신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일(토머스 베리, Gardening is an active participation in the deepest mysteries of the universe)임을 알록달록 오색 빛깔과 깊고 그윽한 향기로 묵묵히 일깨우고 있습니다.

열두 해 전 이 정원을 처음 일구던 때가 떠오르는군요. 목회 초입부터 줄곧 나무 심고 꽃 가꾸기를 즐겨하며 창조 영성의 샘물을 마셔온 몸이니, 생명의 주님을 본받아 대지(大地)와 동무하고, 대지에서 자라는 생명을 알아야만 생명에 대해, 그리고 생명과 생명이 어우러져 이루는 조화와 평화에 대해 실답게 말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갈릴리교회는 주님이 제게 맡겨주신 주님의 밭(ager Domini)이니깐요. 이 밭을 낙원을 열핏 (맛)보여주는 정원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 하신 말씀 그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이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황폐한 땅을 보며 지나다녔으나, 이제는 그곳이 묵어 있지 않고, 오히려 잘 경작된 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동산(the garden of Eden)처럼 되었다고 할 것이다”(겔 36:34-35). 벌과 나비와 새와 사람 등 온갖 숨탄것이 찾아와 생명과 평화의 환희에 젖어드는 정원으로 만들기!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에덴 프로젝트(Eden project)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있을 만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정원이며, 유대교와 기독교의 기원적 토대도 에덴 정원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정원은 우리에게 낙원을 맛보여주는 잠재력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습니다. 낙원 맛보기가 가능하려면, 누군가가 정원을 일구기 위해 수고하며 이마의 땀방울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금의 고투라도 없으면, 환희는 있을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 환희를 경험하기 위해 수고의 땀방울을 아끼지 않는 정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부임하던 당시 갈릴리교회에는 텃밭이 딸려 있었습니다. 150평 규모의 텃밭을 교우들 세 가정이 갈라서 부치고 있었습니다. 그 교우들은 저마다 자기 소유의 논과 밭을 일구고 있는 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목사도 흙을 알고, 생명을

알아야 하니, 이제부터는 제가 교회 텃밭을 관리해 보렵니다. 꽃도 심고 정원수도 심어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 보렵니다.” 그리하여 갈릴리교회 텃밭은 정원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원을 일구기 시작하자, 버거운 난제로 다가오는 것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축대용 돌들 확보하기, 축대 쌓기, 화단과 화단 사이에 통로 만들기, 화단에 투입할 흙 확보하기, 기존의 밭에 무수히 자리한 잡석 골라내기, 해마다 무성히 자라나는 잡초 제거하기, 너른 화단에 식재할 화목(花木)과 화초 입수하기, 째깍이 재배법과 번식법 익히기 등등. 하나같이 엄청난 노동력과 땀방울과 비용을 요구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십여 년이 넘도록 지치지 않고 비밀의 정원을 일구며 정원사로 자칭하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생명의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의에 주님이 베풀어주신 크나큰 은총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명의 주님 닮기

저는 믿음살이란 생명의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생명의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면, 정원사의 길을 걷는 것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정원사의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 특히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차적 성소(聖召)라고 힘주어 말하곤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손수 창조하신 아담을 데려다가, 손수 조성하신 에덴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 돌보게 하셨습니다(창 2:15). 인류의 대명사 아담에게 부여되었던 것이니만큼, 정원사의 길은 모든 인간이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하고 걸어야 할 참으로 바람직한 길임에 틀림없습니다. 윌리엄 템플 경은 정원사의 길이 얼마나 바람직한 길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서를 믿는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원을 일구는 사람의 삶을 가장 행복한 삶으로 여기셨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아담을 에덴 한가운데 두지 않으셨을 것이다.” 우리 시대에 가장 절실한 소임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정원사의 소임을 꼽습니다. 그 소임을 외면하거나 무시했을 때, 우주를 구성하는 생명들에게 어떤 재앙이 닥칠지 눈에 선하기 때문입니다.

정원사의 길은 생명의 주님을 닮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어쩌서 그럴까요? 요한복음 19:41-42 말씀대로, 생명의 주님은 정원에 자리한 무덤에 묻히셨고, 요한복음 20:15 말씀대로 정원사의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개역과 새번역성경은 동산과 동산지기로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성경에 기록된 ‘케포스’ κῆπος의 정확한 번역어는 ‘정원’이고, ‘케푸로스’ κηπουρός의 제대로 된 번역어는 ‘정원사’입니다. 이 사실에 유의해서 말하건대, 정원사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정원사 가운데 으뜸 정원사이시며, ‘정원사’는 그리스도론적 칭호 가운데 넘버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대단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입니다. 17세기 영국 시인 롤런드 왓킨스(Rowland Watkyns)의 <정원사>라는 제목의 시가 떠오릅니다.

마리아는 하루 종일 무덤을 지키네. 서서 울기도 하고,
예수께서 누워 계시던 무덤 속을 들여다보기도 하면서.
찾고 있던 분을 찾았건만,
알아보지 못하네,
주님의 얼굴을.
그분은 이제 정원사이신 것을.

14세기 영국 수도자 노리치의 줄리안(Julian of Norwich)은 부활하신 주님을 환시(幻視) 중에

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다음과 같이 생생히 묘사합니다.

나는 주인이 상석에 앉아 있고, 종이 그 주인 앞에 공손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 외견상, 그(종)는 일할 준비가 된 일꾼의 차림을 하고서 주인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 그는 낡아서 군데군데 해진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몸에서 나는 땀에 전체 너무 짝 조여서 바스러지기 쉬운 상태였습니다. 그의 무릎 아래 한 뼘 가량은 곧 닳아 없어질 것처럼 옷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누더기가 되어 찢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 그의 지혜는 주인을 기쁘게 해드릴 만한 일이 하나 있음을 속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 주인이 보내자, 그는 곧장 밖으로 내달렸습니다. ... 대지에는 주인이 사랑하는 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 그는 대단히 멋지고 대단히 어려운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정원사가 되어 땅을 파고, 도랑을 내고, 땀을 흘리고, ... 때를 따라 초목들에게 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는 고생을 참아가면서 냇물이 졸졸졸 흐르게 하고, 당도 높은 열매가 많이 열리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_[Showings], the fifty-first chapter에서.

못 생명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 곧 생명 세상을 만드는 길은 실로 다양하지만, 정원사의 길만큼 생명의 주님을 닮아가는 데, 생명 세상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한 가지(참고. 눅 10:42)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원은 생명과 생명이 조화를 이루는 낙원의 상징이자,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물려받게 될 완벽한 고향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명 긍정과 생명 살림이 왕성히 이루어지고, 생명과 생명의 어우러짐이 이루어지는 정원을 일구고 가꾸는 것만큼 생명과 평화를 힘차게 알리고 증언해야 하는 교회에 바람직한 일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정원이 주는 유익

정원은 그것을 일구는 사람에게 싱그럽고 생명력 넘치는 통찰력의 보고(寶庫)가 되기도 합니다. 정원에서 자라는 각양각색의 생명은 설교단에서 전하는 설교자의 메시지를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메신저이기도 합니다. 설교자가 정원 일에 힘쓰면, 정원은 설교자의 내면을 풍요롭게 해줄 뿐 아니라, 설교자의 언어도 신선하게 해줍니다. 흙을 만지며 몸으로 익혀가는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밖에도 정원은 무수한 숨탄것을 불러 모읍니다. 벌과 나비들, 갖가지 새들, 양서류들, 그리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불러 모읍니다. 정원 일에 힘쓰는 설교자는 탐방객을 맞이하는 즐거움도 덩으로 얻습니다. 예컨대 국립수목원에서 2016년에 펴낸 [가보고 싶은 정원 100]에 선정될 만큼 저희 갈릴리교회 비밀의 정원이 아름답다는 소문이 퍼져 해가 갈수록 방문객이 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턱을 낮추기 쉽지 않은 요즘, 빈부·종교·교단·이념을 불문하고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은 감사하게도 갈릴리교회의 문턱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반증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방문객들의 반응은 거개가 놀람과 감탄 일색입니다. “와아! 야아! 어머니! 어머머! 아름답다!” 목사의 설교로 그런 놀람과 감탄을 자아내기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던가요. 저마다 마음에 드는 꽃들을 카메라에 담거나, 꽃들을 배경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담거나, 향기로운 꽃송어리에 코를 갖다 대고 킁킁거리는 방문객들의 얼굴이 더없이 환합니다. 정성껏 가꾸어 개방한 정원 하나만으로도 교회는 사람들에게 경이로움과 기쁨, 곧 ‘아하 체험’을 너끈히 안겨줄 수 있습니다. 탐방을 마치고 돌아갈 때면, 방문객들의 찬사가 이어집니다. “정원사님, 멋져요. 정원사님, 고마워요. 덕분에 어둡던 마음을 치유하고가요. 떠나고 싶지 않아요. 또 와도 되죠?” 탐방객들 중에는 아예 교회에 등록하는 이들도 있

습니다. 지금 저희 갈릴리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계동 지역(어촌 지역) 주민 외에도 여수 시내에서 여섯 가정, 순천에서 세 가정, 곡성에서 두 가정이 예배에 출석하는데, 이들을 갈릴리교회에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 바로 정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모름지기 교회는 낙원을 열핏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하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정원을 일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시다만, 모쪼록 힘써 정원을 일구고, 정원사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닮아가며, 교회로 통칭하는 주님의 밭을 낙원을 열핏 보여주는 곳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며, 파울로 코엘료가 소개한 작자 미상의 글귀를 읽는 것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삶에서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물을 세우거나, 혹은 정원을 일구거나. 건물을 세우는 사람들은 그 일에 몇 년이라는 세월을 바치기도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그 일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는 순간,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벽 안에 갇히게 됩니다. 건물을 세우는 일이 끝나면, 그 삶은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원을 일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몰아치는 폭풍우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계절에 맞서 늘 고생하고 설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과는 달리 정원은 결코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정원은 그것을 일구는 사람의 관심을 요구하는 동시에 그의 삶에 위대한 모험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정원을 일구는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봅니다.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 한 포기 한 포기의 역사 속에 온 세상의 성장이 깃들어 있음을..[브리다]의 서(序)에서

정원신학을 기대하며

곽호철 교수 (계명대학교, 교육연구소 살림 소장)

작은 창이 있는 방에서 큰 창이 있는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작은 창이 있는 방에 지내면서 답답한 마음이 있었지만, 왜 그런지는 몰랐습니다. 큰 창이 있는 사무실에 오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작은 창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늘과 나무들이 눈에 들어오니 마음이 한결 편하고 눈도 침을 얻습니다.

2018년 여름은 말로만 듣던 가마솥더위입니다. 대구에 살면서 이런 더위는 처음 경험합니다.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도저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니 지구온난화 경고가 피부에 와 닿습니다. 산 밑자락에 나무로 우거진 공원이 밤마다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을 보면 고층건물 숲에 과시적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인간에게는 질투심을 유발하는 빌딩 숲이 아니라 쉼과 안식의 식물 숲이 더 필요합니다.

이미 한국에서의 도시들은 빌딩 숲이라 더 허물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식물 숲을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그 한 방법이 정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 정원이 도입될 때는 과시적인 차원이었지만, 이제 녹색 정원은 생존과 쉼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녹색이 보이지 않는 삶은 답답하고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처음으로 정착하게 한 곳은 낙원이었습니다. 전망 좋은 로열층 아파트가 아니라 풀과 나무가 우거진 자연이었습니다. 풀숲 사이에서 인간이 넉넉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주셨고, 아담과 이브는 평온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고 좋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이브를 포함한 우리들도 청지기로서 주어진 자연을 잘 가꾸고 돌보길 요청하셨습니다.

사막에 사는 이들에게 정원은 혹독한 기후에서 안락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생명의 빛깔을 찾아보기 힘든 사막에서 정원은 말 그대로 생명의 빛을 통한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줄 실제적인 상징이 됩니다. 사막이 아닌 풍요로운 소산을 내는 지역에 사는 우리들의 삶은 정신적 사막화를 겪고 있습니다. 먹고 마실 것은 풍요롭고 과학기술은 끝없이 전진해 가는데, 인간의 영혼은 풍요의 환각과 발전의 속도에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쉴 곳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교회와 신앙인들이 황폐화된 정신세계를 치유해 줄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한 좋은 공간이 정원입니다. 태초에 인간이 처음 자리를 잡았던 곳,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호흡과 정신을 맑게 해 줄 곳이 자연의 빛을 전하는 정원입니다.

이미 여러 마을에서 공동체 정원을 시작했고 그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원을 만들어서 생명의 기운과 빛이 없는 곳에 생명의 빛을 심고 생명의 기운을 살려내고, 그곳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어린이들도 함께 참여해서 생명을 키워내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정원은 정서적인 안정감, 평온감, 스트레스완화 효과 등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인간들이 창조의 본향인 자연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있는지도 모릅니다. 실낙원에 사는 우리가 낙원을 그리며 할 수 있는 작지만 중요한 시작 중 하나가 정원입니다. 정원을 거닐며 우리의 영성을 깊게 하고, 텃밭정원에서 건강한 먹거리도 마련하고, 보는 정원을 만들어서 마음에 안정감을 얻고, 정원에서 함께 어울리며 삶을 나누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정원은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성숙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원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적 성찰을 함께 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정원도 좋고, 텃밭도 좋고, 아주 작은 화분도 좋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경험으로 정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면 새로운 생명과 희망의 씨앗을 함께 퍼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 교육연구소‘살림’은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부설로 함께 ‘그리스도인의 정원숲네트워킹’을 통해 모두가 골고루 풍성한 삶을 살도록 지원하고 활동합니다.

정원 숲 신학을 시작하며

김수연 교수 (연세대 객원교수, 이화여대 강사)

학교에 가기 위해, 이따금 한 대씩 오는 마을버스를 기다리며 자투리땅을 보게 되었다. 겨우 내내 플라스틱, 종이컵, 담배꽂초로 덮여 있어서 정말 못 쓰는 땅인 줄만 알았던 작은 땅이었다. 차 한 대도 주차 못할 정도의 삼각형 비슷한 좁은 땅이었던 것이, 어느 날 보니 방울토마토, 고추, 가지, 호박이 심겨 있는, 그리고 이랑 고랑을 갖춘 제법 밭의 모습이 되어 있었고, 몇 주 후에는 버팀목에 기대어 키도 훌쩍 자라났고 열매도 많이 맺었다. 쓰레기에 덮여 있어 죽은 땅인 줄만 알았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제법 넓은 살아있는 땅이었다는 것이 신기했다. 땅은 살아있는 생명이었다. 누군가가 버린 한 두 개의 쓰레기에 마치 쓰레기 버려도 되는 것으로 허가 받은 양,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계속 쓰레기를 버려, 더럽혀진 것이었다. 그러나 꽃밭처럼 아름다운 채소밭으로 변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건강한 밥상을 제공했을 것이다.

땅은 분명 살아있는 생명이고, 여성신학자 로즈마리 류터가 지적한 것처럼, 생명을 보듬어 자라게 하고 또한 생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구 생명 ‘가이아’는 성서의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 땅, 물, 자연 속에서 함께 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이 몸을 제외한 영혼의 구원이라거나 혹은 동식물을 제외한 인간만의 구원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류터의 생태신학은 유기체적인 지구생명체의 공동운명을 강조하며 사랑의 실천을 인간 외의 다른 존재로까지 확대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류터의 신학은 ‘계약 전통’을 강조하며,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법을 통해 하나님과의 본래적인 관계를 회복하려 한 히브리 사상을 주목한다. 신약성서 안에 있는 주의 은혜의 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기쁜 소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 류터는 계약 전통의 관점에서 인간이 만일 특별하다면 그것은 지배자로서가 아닌 ‘관리인(caretaker)’ 그렇다고 한다. 또한 그가 주장하는 ‘성례전적 전통’은 하나님의 창조가 궁극적으로 치유이고 구원이라고 보는 관점으로서, 예수그리스도의 현현은 결국 우주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셀리 맥페이그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를 ‘성례전적인 입장’과 ‘예언자적인 입장’으로 설명하며, 전통적인 기독교론의 내용인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제 희생적인 구원보다는 구원적인 창조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론의 내용을 희생적 속죄가 아니라 우주의 웅대함과 인간의 책임감을 일깨우는 신학으로 제시하며, 상호관계, 상호의존의 네트워크를 가진 이 지구라는 별을 유지하는 생태신학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또한 실재라는 사실을 주장하며, 맥페이그는 ‘신학,’ 즉 하나님에 대한 말의 최소화와 찬양과 연민의, 삶의 신학을 제안한다.

이러한 생태신학의 내용을 검토하며, 다시 한 몸인 지구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 지구생명에 유해한 것들, 즉 플라스틱, 핵발전소, 합성물, 화학물 등을 제거하는 일들이 서양의 치유요법이라면, 이제 시작하는 정원숲의 신학은 지구생명 유기체 안의 세포 하나하나를 다시 건강한 세포로 살려내고자 하는 동양의 치유요법이라 생각된다. 두 가지 치유요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실행될 때 지구 생명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드류대학 시절, 학생관 앞 마른 땅에 고사리를 심어 작은 숲을 만들었던 니콜과 그의 친구 매튜의 노력이 생각나며, 우리의 캠퍼스 곳곳에도 생각을 일깨우는 땅들이, 풀로 밭으로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에코, eco는 그리스어로 집, 삶의 공간, 그리고 살림을 의미한다. 푸른 별 지구 행성을

하나의 삶의 공간으로 여기며, 버릴 것, 비울 것, 부족한 것을 찾아내며, 우주적 규모의 큰 살림을 시작하려는, 정원숲의 신학을 지지하며 부족한 글을 마칩니다.

정원 (庭園) 속에 깃든 교육적 의미

조은하 교수 (목원대학교)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의 세상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한 생명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모두 담겨있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생명의 탄생이다. 한 생명은 자라면서 삶의 기쁨과 슬픔, 때로는 희망과 좌절을 인생의 순간순간 마다 경험한다. 기쁨과 슬픔의 교차 속에서 기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절망과 희망의 위기 속에서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배워야 한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들의 탄생을 축하하며 나무를 심어주었다. 남자아이에게는 삼나무를 심어주고 여자아이에게는 소나무를 심어주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나무들을 함께 키워가며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우리는 교육적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무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연초록이 손을 내미는 3월, 나뭇잎들의 새로운 움튼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첫 번째, 나무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숙연한 신앙고백이다. 한 그루의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흙, 계절에 따라 내리는 햇살, 비, 바람, 공기.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나무의 생명을 유지해 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주신 것들이며 거저 주신 것들이다. 생명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 우리의 삶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는 것이다. 인간의 삶의 유한성,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매일의 신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여기서 인생의 기초를 배우게 된다. 바로 은혜와 겸손이다. 그리고 희망이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나무를 키우며,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기다림을 배울 수 있다. 나무가 자라는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아무리 거름을 하루 밤사이에 많이 준다 하여도 하루아침에 나무가 훌쩍 자라지 않는다. 오히려 과한 거름은 나무를 자라지 못하게 한다. 쏟아 붓는 홍수처럼 물을 하루아침에 많이 주면 그 나무를 썩고 만다. 나무가 온전히 자라는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기다림이다. 같은 나무 안에서도 꽃이 필 때 서로 피어나는 시간이 다르듯 같이 심고 가꾼 나무라 할 지라도 자라는 속도는 모두 다르다. 자기만의 시간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 자기만의 꽃을 피우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다림을 배운 자만이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구원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모든 것이 초고속의 시대이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빨리빨리’에 익숙해져 있다. 남보다 뒤질까 속도가 느릴까 조바심하며 경쟁과 비교 속에서 스스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세 번째,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절제와 단순의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다. 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아깝고 아프지만 스스로 무성한 가지들을 잘라낼 수 있는 절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배우는 것은 이렇듯 심오한 삶과 신앙의 가치들이다. 이렇게 하여 키운 나무들을 결혼식 날 가지치기를 한다. 신랑의 나뭇가지와 신부의 나뭇가지를 둥글게 엮어서 신혼의 첫날 밤, 독립하여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첫 걸음에 신방에 걸어준다. 신랑의 자라온 삶의 역사와 신부의 삶의 역사가 만나는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 이웃들의 관심들이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아이의 탄생과 함께 자라온 나뭇가지 속에 머금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신혼 첫날밤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신의 가정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신앙의 유산, 거룩한 정신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 유산은 바로 그들의 출산과 함께 가정과 마을이 함께 만들어온 거룩한 신앙의 고백이며, 살아낸 시간의 증거이며, 여전히 미래를 향해 자라고 있을 희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나무 한그루에 이렇듯 중요한 신앙의 가치가 숨어있다. 그렇기에 꽃과 나무를 심고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의 의미들을 이토록 아름답게 가꾸고 키우는 일인 것이다. (이 글은 교회성장 2018년 2월호에 수록된 것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생태공동체, 수도원의 정원

설은주 원장 (살롬가정교육문화원)



그림 1 독일 가나안 공동체



그림 2 토마토 정원



그림 3 독일 그리스도회 형제회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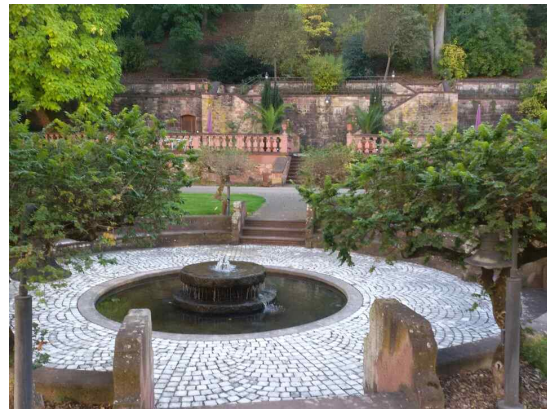


그림 4 독일 그리스도회 형제회 정원



그림 5 독일 그리스도회 형제회 정원



그림 6 스위스 그리소도와 함께하는 형제회 수도원 정원



그림 7 (그림 6)



그림 8 (그림 6)



그림 9 (그림 6)



그림 10 (그림 6)



그림 11 스위스 그리스알프 예배당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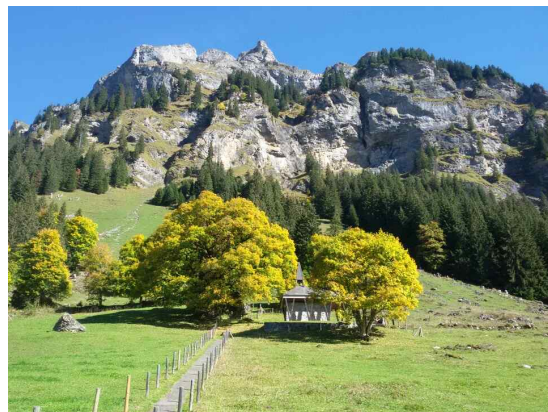


그림 12 (외부)



그림 13 스위스 엘쉬예배당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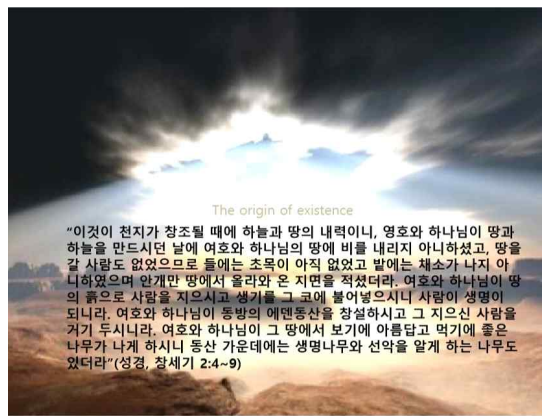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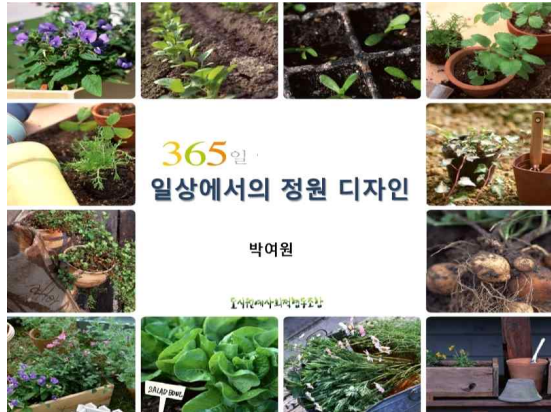
그림 14 (외부)



그림 15 스위스 그랑샹 공동체 정원

일상에서의 정원디자인

박여원 박사 (도시원예사사회적협동조합)



정원일의 즐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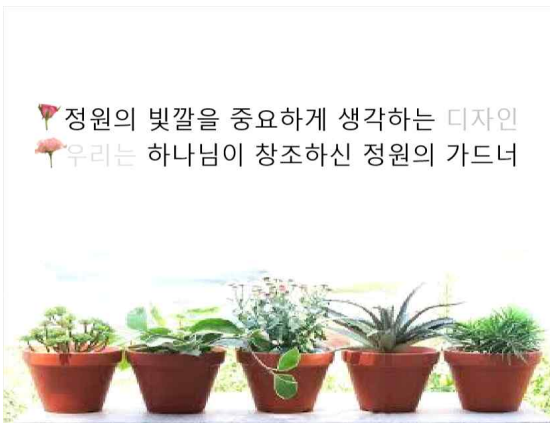
"정원은 문명에서 벗어나 자연의 리듬에 몸을 맡기고, 영혼의 평화를 지키는 장소이다"
- Hermann Hesse





아프지 마라!

원인	증상
수분과다	잎 끝이 갈변, 축 처짐
광 부족	잎이 연해지고, 커지면서 마디 사이가 길어짐.
광 과다	잎 끝이 마르고 퇴색
산소부족	혐기성 곰팡이가 생김
비료부족	잎이 누렇게 되며 전체적으로 약함.
저온	잎이 암갈색으로 변함
공중습도부족	잎 끝이 마르고 누렇게 변함
화분갈이 필요	잎끝이 갈변하며 잎이 떨어짐.



고맙습니다.

Mobile. 010-8389-3503
홈페이지: kohti.co.kr
e-mail: kohtier@naver.com

아름다운 너.

남금란

죽은 줄 알고
버린 화분에서
싹이 텴다.
어둠 속 살짝 들어온
한 줄기 햇살따라
목숨줄을 잡았다.

몸을 펴서 오르다 막히면
허리를 굽혔다가
다시 힘껏
해를 향해 고개를 들고는
꽃망을 틔우고

마침내 오늘
날보고 환히 웃었다.

설 새 없던 물기에
씩어가던 뿌리를
햇빛이 곱게 어루만지고
바람이 살살 말려주니까
그 나머지는
저 혼자 힘으로 살아냈다.

너를 포기하고 잊은 동안도
너는 나와 함께한 기억을
사랑이라 하고
용기로 삼아,

피어난 꽃
아름다운 너의 붉은 이름
다알리아.



꽃이 안 피는 이유.

꽃집에서 사온
안개꽃 화분 두 개.
하나의 화분에선
순결하고도 귀여운 꽃이 핀다.
다른 화분에선
꽃이 안 핀다.
나란히 두고
애지중지 돌보는데
왜 너만 못 피는거니?
햇볕과 바람과 물과 흙의 은총은
똑같은데...
꽃 못 피우는 너에게
내 마음 내 손
더 주는데...

오늘 아침
너는 왜 꽃을 못 피우는거니?
라고
이제 더 묻지 않는다.
안 보이는 속 뿌리
내 모르는
그럴 일 있을거야.
꽃망을 움추리고
있는 너도
예쁘구나.
너희 둘을 비교하는
내 마음
이제 그치마.
더 주었는데...
하는 마음도 버리마.



꽃이 핀 이유

두 개의 안개꽃 화분.
꽃 못 피우던 화분에서
꽃이 피기 시작했다.

하룻밤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판단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왜"냐고 그 이유를 물을 수 없는
너는 생명이므로.

사랑으로 피어났구나.



향기 나는 나무

퇴근길,
 시내버스가 서는 곳은 북한산 생태숲.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섰다.
 원주민인 나무는
 자신들의 점령자인 사람을
 향기로 맞아준다.

나는 저절로 나무에게 끌리고
 하루의 피로는
 나무향기가 가져가 준다.

나무의 향기는
 겉에서 꾸민 향기가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것.
 흙과 공조하여 힘껏 수분을 끌어올려
 작은 나뭇잎 하나에까지
 올려 보내는
 성실하고도 조용한 헌신.

친구나무들과의 조화 속에
 이기적 계산 없이 하나 됨을 실천하는
 무아행의 사랑.

자신을 해치는 천적에게도
 보복심 없는 향기로 대응하고
 선인과 악인을 구분 없이
 좋은 것을 고루 주는 자비는
 신의 성품을 닮았구나!

퇴근길,
 향기 나는 나무아래
 벤치에 앉아
 생각을 멈추다
 돌아가는 발길에는
 향내가 묻어...



꽃망을 움푹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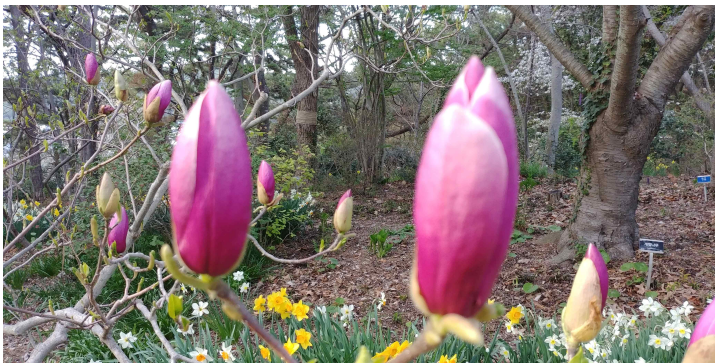
꽃망을 움푹올 때
가슴 설레입니다
추운데 어딜 나가 있었는지
언 땅 그 아래서 무슨 일 있었길래
고렇게 예쁜 꽃잎 피워냈는지!

봄 오는 연못가에
송사리 해엄칩니다.
추운 날 어디 가 있었는지,
얼음장 그 아래서 무슨일 있었길래
고 작은 꼬물거림 생겨났는지!

말 안듣던 아들내미
어느날 문득 철이 듭니다
안보이는 아픔 속 무엇 꿈틀거렸기에
고렇게 환하게 털고 일어났는지!

언 가지에 봄이 드니 꽃망을 되고
울 아들에 봄이 드니 사람 됩니다.

꽃망을 움 톼올 때 가슴속엔 이미 꽃밭
해마다 봄보다 서둘러 달려와서
영차 영차 밀어올린 그 고운 것...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요!



사랑이 그려놓은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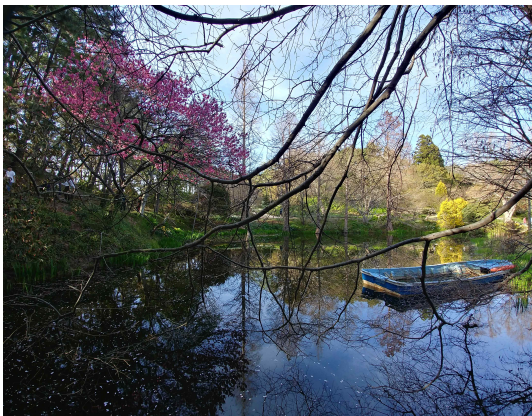
햇별이 비를 몹시 사랑하여
나뭇가지에다
터질듯 빨간 홍시
달아놓았나?

하늘이 땅을 밤낮 그리워하여
파란 제 몸에
하얀 연서 적어놓았나?

하늘 사랑에 겨운 땅이
너무 좋아서
온 산마다 단풍 불 지르고
"나 또한 그러하다"
화답하는가?

작은 분꽃마저
진분홍 사랑을 까만 씨앗으로
남겨놓는 가을,

온 천지에
사랑이 그려놓은 고운 풍경.



오월의 넝쿨장미

붉디 붉은 마음 하나,
이심전심 엮고 엮어
등불을 켜나 보다.
촛불을 드나보다.

하나의 생명 더불어 부여잡고
서로를 건너지며
곁에서 전해준 온기에 겨워
나도 몰래
꽃으로
터졌나보다.

나를 지키는 너의 마음이
금빛 햇살 타고와
뿌연 먼지 밀치고서
오월 하늘에
향기로
터졌나보다.

가시를 품고서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거라고
아름다움이란 원래
아픈채로 그냥 웃는거라고,
손을 잡았을 뿐인데
그저 웃어지는거라고...

오월의 넝쿨장미,
너희는
딱 그 말을 하고 있어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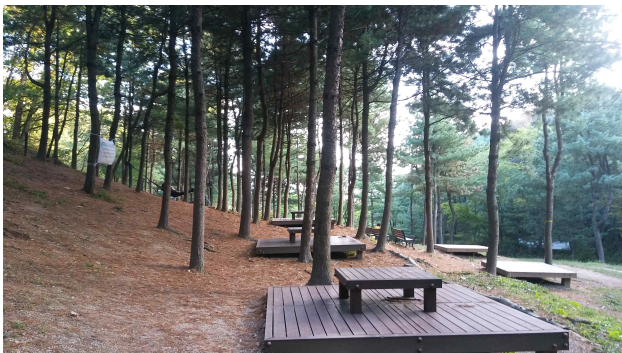
숲에서 예배드립니다.

온갖 것들인 생명을
아낌없이 차별 없이
나누어주면서도
자랑하지 않으며
큰 팔 벌려
품에 안아 기르는
당신의 마음을 닮은 숲에서
예배드립니다.
숲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희 마음도 숲의 마음을 닮아 당신의 성전이 되고 싶습니다.

큰 나무들이 위로부터 해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통로가 되듯,
저희도 오로지
당신의 뜻이 우리 영혼을 타고 흐르는 통로가 되게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곧 저희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평화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숲속에서는 땅과 하늘 물과 바람
모든 것이 하나가 되듯,
우리도 서로 모습은 다르나
모두 하나이므로
사랑만이 있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기
저희에게 비추어
생명을 창조하는 완전한 기쁨을 누리며,
당신 안에서
결핍 없고 외로움 없는
참 만족을 누립니다.



산림청장의 귀촌일기

조연환

中 녹우정의 소나무 두 그루

산림청장이 시골에 집을 짓고 산다고 하니까 어떻게 꾸미고 사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다. ‘산림청장 네 집이니 정원수도 잘 가꾸어 놓았겠지?’ ‘귀한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을 거야.’

결론부터 말하면 녹우정 나무는 별다른 계획도 설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심어졌다. 이 사람이 와서 이곳에 이 나무를 심고 저 사람이 와서 저기에 저 나무를 심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심었다. 며칠 집을 비웠다가 돌아오면 못 보던 나무들이 심어져 있다. 친구들이 집주인 허락도 없이 여기저기 나무를 심어놓은 것이다. 그렇게 뒤죽박죽으로 심은 나무들이 제자리를 잡고 녹우정의 일부가 되어 제 몫을 다하며 자라고 있다.

녹우정 나무의 첫 인연은 소나무와 맺었다. 2005년 10월 집을 짓고 났는데, 정원이 너무 허전해보였다. 이명기 사장이 자기 산에서 소나무 한 그루를 포크레인으로 캐왔다. 야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나무라서 기품 있게 보이지는 않았다.

소나무를 심으려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니 커다란 바위가 나왔다. 그런데 보통 바위가 아니었다. 영락없는 두꺼비 형상이었다. 땅속에 잠자고 있던 두꺼비가 꺾충 뛰쳐나온 듯했다. 등이 평평해서 돌이 앉아 쉴 수 있을 정도로 컸다. 모두들 땅속에 묻힌 보물이 나왔다고 즐거워했다. 웬지 기분이 좋았다.

분뜨기도 하지 않고 포크레인으로 푹 떠온 소나무를 그 자리에 심고 두꺼비바위를 옆에 놓았다. 소나무는 분뜨기를 미리 해놓고 정성껏 옮겨 심어도 살리기 쉽지 않은데 포크레인으로 떠다 심었으니 은근히 걱정되었다. 하지만 탈 없이 잘 자라주었다. 언뜻 보기에 시원찮게 여겨졌던 소나무가 지금은 녹우정의 상징이 되었다. 모두들 그 소나무를 부러워한다. 게다가 두꺼비바위와 참 잘 어울린다.

처음에는 소나무를 심어놓고 가꿔주지 않아서 볼품이 없었다. 전지를 해줘야 하는데 할 줄 몰라 마음이 답답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봄날, 트럭을 타고 온 사람이 소나무를 전지하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가 물으니 산림청장 네 소나무가 엉망이라고 가꿔주라고 해서 왔단다. 충북도청에서 산림과장을 역임한 곽종천 선배가 녹우정을 와보고는 한심했나보다. 나한테 상의도 없이 기술자를 보냈다. 미리 얘기해봐야 거절할 것 같으니까 무작정 보낸 것이다. 잘 다듬어 놓으니 어느 부잣집 정원에 있는 소나무처럼 변했다. 사람이나 나무나 가꾸기 나름인 모양이다. 그 뒤로는 산림아카데미에서 만난 홍의표 회장이 매년 전지를 해주고 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단연 소나무이다. 1983년 산림청 조사통계 계장을 맡고 있을 때 처음으로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를 조사했는데, 소나무가 1위였다. 그 후 산림청에서는 정기적으로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여전히 소나무를 좋아한다. 소나무는 옛날부터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태어나면 소나무 가지로 금줄을 내걸었고, 소나무 뿔감으로 밥을 지어 먹었고, 소나무로 집을 지어 살다가 죽으면 소나무 관에 누워 영면에 들었다. 소나무는 ‘솔’과 ‘나무’의 합성어다. 솔은 상上, 고高, 원元의 뜻을 지니고 있다. 나무 중에서 우두머리라 하여 ‘수리’라고 부르다가 ‘솔’로 변했으며 다시 ‘솔’로 자리 잡았다. ‘소나무 송松’은 ‘나무 목木’옆에 ‘제후 공’ 공자를 쓴다. 나무 중에 으뜸이라는 것이다.

해방 이후 과도한 벌채와 송충이, 솔잎혹파리, 소나무깍지벌레에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큰 피

해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산에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나무는 역시 소나무이다. 소나무는 햇볕을 좋아한다. 산에 활엽수들이 우거지면서 소나무들이 살 터전을 잃고 있다. 자연 생태의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수천 년 간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소나무가 희귀식물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혹자는 소나무를 망국송이라고 하지만 이는 우리 소나무를 폄하하는 말이다.

소나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이다. 만약 국제나무품평회가 열린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무로는 소나무, 그중에서도 백두대간에 자라는 금강송이 적격이다. 일본의 편백나무, 독일의 참나무, 미국의 솔송나무, 열대지방의 티크와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우리 것을 제대로 알고 소중히 여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두꺼비바위 옆에 소나무를 옮겨 심고 몇 년 뒤 녹우정에 두 번째 소나무가 들어왔다. 하루는 나무의사인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청장님, 우리 원장님이 출장 가는 길에 청장님 집을 들렀나 봐요. 산림청장 출신이 시골에 집을 짓고 산다 하니 제대로 번듯하게 꾸며놓았나 궁금했는데, 가보니 청장님 성격대로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무 한 그루 심어주라고 하네요.”

아까시나무와 침닝쿨만 무성한 황무지 같은 땅에 아내와 내가 나무 한 그루 꽃 한 포기 심어 가꾸니 우리 집 마당에는 값나가는 나무가 별로 없었다.

얼마 뒤 친구는 반송 한 그루를 가져와 마당에 심어놓고 갔다. 아마 나무병원 원장이 내 친구를 통해 심어준 반송이 녹우정에 가장 값비싼 나무가 아닐까 싶다.

반송은 소나무의 한 품종으로 땅에서부터 여러 줄기로 갈라져 부채를 펼친 모양으로 자란다. 내 친구는 이 반송을 심어주고 나서 매년 봄이면 녹우정에 내려와 잘 다듬어주고 있다. 때로는 우리 부부가 집을 비운 사이에 점심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와서 혼자 나무를 다듬어놓고 갈 때도 있다.

심은 지 벌써 10년이 넘어 키가 훌쩍 컸다. 더 크면 전망을 가릴 것 같아 아내는 걱정이다. 하지만 이 나무는 임자가 따로 있고 가꾸는 사람도 따로 있으니 나는 지켜만 볼 뿐이다.

中 30년지기 단풍나무

서울 상계동에 살 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우리 집만 베란다 새시를 하지 않았다. 돈도 없었지만 굳이 할 필요를 느끼지도 못했다. 아내는 베란단에 흙을 부어 조그마한 화단을 만들고 거기다 수세미도 올리고 화분도 올렸다. 그런데 어느새 단풍나무 씨앗이 화분에 떨어져서 싹이 나 자라고 있지 않은가. 아내는 저절로 날아와 자라는 그 싹을 잘 키웠다. 상계동에서 대전으로 이사 올 때 8년을 자란 단풍나무 화분도 가지고 왔다. 대전 아파트에서도 8년을 살았다.

금산에 녹우정을 짓고 이사 오면서 단풍나무를 화분에서 빼내어 정원에 옮겨 심었다. 우리 집에 제일 먼저 온 나무이고 이제 나이가 서른 살쯤 되었으니 녹우정에서 가장 어른 나무인 셈이다.

높이 키울 수 없어 다듬어주고 있는데, 내가 손을 대면 보기 싫어진다고 단풍나무는 꼭 아내가 직접 손질한다. 단풍나무도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줄 아는지 아담한 모습으로 잘 자라고 있다.

몇 년 전 우리 사형제가 고향 보은 선산에 가족 묘지를 조성했다. 처음에는 모두들 수목장을 하기로 했는데, 동생들이 마음을 바꿔서 결국 나만 수목장을 하기로 했다. 삼형제는 가묘를 해놓아서 내 자리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

아내에게 말했다. “나 죽으면 이 단풍나무를 내 자리에 심고 그 앞에 나를 묻어줘요.” 아내

는 오히려 자기가 먼저 갈 테니 꼭 이 단풍나무 아래 묻어달란다. 우리 부부를 가장 오래 지켜본 나무이니 충분히 의미 있지 않은가.

中 자연은 이대로 충분히 아름다워

녹우정 터를 구입해 정자를 짓고 컨테이너하우스를 들여놓고 집을 짓기까지 제대로 설계를 해본 적이 없다. 우선 자금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여유롭지도 못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하나 이루어진 일들이다. 산촌의 삶이란 이런 맛도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반듯하게 해놓고 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어디 그게 쉬운 일인가. 되는 대로 하나씩 심고 가꾸고 만들어가는 재미도 있는 것이다.

결혼할 때 모든 것을 다 마련해놓고 신혼생활을 하는 것도 행복하겠지만 단칸 셋방에서 시작하는 것도 보람이 있다. 나도 아내와 결혼할 때 부엌방을 월세로 얻어 숟가락 두 개, 젓가락 두 개, 작은 솥, 사발, 대접 몇 개만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때 큰돈 들여 마련한 신일선 풍기를 40년 가까이 사용했다. 요즘에야 이런 얘기가 어디 통하기나 할 것인가.

그래도 만약 다시 집을 짓고 정원을 꾸민다면 처음 경험을 토대로 좀 더 멋지게 가꿀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조경설계를 해야 한다. 돈 들여서 하면 좋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집 뒤에는 늘푸른침엽수를 심는다. 소나무, 잣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등이 떠오른다. 향나무는 상록수이기는 하지만 피하고 싶다. 정원에 심을 과실나무에 병해를 옮기기 쉽기 때문이다.

울타리는 나무울타리로 하고 싶다. 탕자나무, 사철나무, 쥐똥나무가 생각난다. 화살나무 울타리도 좋을 것 같다. 봄이면 순을 따서 나물로 먹을 수 있고 가을이면 단풍이 아주 곱다. 무엇보다 수형을 다듬기가 편리하다.

남쪽 언덕에는 과일나무를 심고 싶다. 복숭아, 살구, 자두, 매실, 모과, 석류, 감나무가 좋겠다. 물론 거름을 주고 약을 치고 손질하느라 번거로울 때가 많다. 그렇지만 산촌의 정원에 봄이면 복사꽃, 여름엔 잘 익은 살구, 가을엔 감, 모과, 석류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 손길이 자주 닿지 않는 곳에는 밤나무도 몇 그루 심어야겠다. 서쪽으로는 벚꽃나무, 이팝나무, 복자기나무, 회화나무를 심는다. 집 앞 정원에는 키 작은 화초류를 심어본다.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이다. 봉숭아, 채송화, 붓꽃, 접시꽃, 모란, 작약은 꼭 심고 싶다. 나라꽃 무궁화는 태국기와 마주 보도록 자리를 잡도록 한다. 이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렌다.

다시 집을 짓고 정원을 꾸밀 기회가 있다면 훨씬 잘할 것 같다. 한번 해봤으니 그만큼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대로의 녹우정도 참 좋다. 비록 설계에 따라 심고 가꾼 건 아니더라도 여러 나무와 꽃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잘해내며 더불어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기 때문이다. 산촌의 정원도 설계를 하고 가꾸는 게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연은 충분히 아름답다.

(안내)

1회용 플라스틱 없는 교회를 향한 집담회

유달리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제법 쌀쌀한 날씨에 미세먼지를 걱정하며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파동 이후로도 어느덧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된 듯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수많은 1회용 제품이 사용되고, 또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와중에 1회용 플라스틱을 아예 사용하지 않기란 어렵다는 실정입니다.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에서는 이러한 현 상황에 관한 집담회를 열어, 교회 여러분의 다양한 생생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1회용 플라스틱 사용과 관련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11월 5일(월) 오전 10시~12시 (사전활동 9시)
- 장소 : 서울새활용플라자
(장안평역 8번 - 답십리역 방향으로 약 400m 전진 - 청년회의소 옆 미라보타워 건물에서 좌회전 - 직진하여 약 300m 이동 - 도착)
- 내용: . 사전활동 (신옥선 님과 함께하는 새활용 체험)
. 발표1/ 주제이야기/ '1회용 플라스틱 없는' 교회
. 발표2/ 교회이야기/ 서울 및 타지역 교회 다수
. 워크숍/ "WHY-WHY-HOW, 왜-왜-어떻게" 체인 만들기

